

“일류 포교사로 다시 태어났어요”

어린이 교사대학 첫 수료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불교 어린이 교사대학’이 상설교육기관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20일 조계사 제 2문화교육관 4층 법당에서 열린 ‘불교 어린이교사 대학 수료식’에 참가한 12명의 수료자들 입에서 터져 나온 한결같은 소리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 있는 어린이 포교 지도교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동안 조계종 포교원이 시범 운영해 온 ‘불교 어린이 교사대학’은 수준 높은 강의와 현실감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강자들로 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불교 어린이 교사대학은 수강 신청을 했다고 모두가 다 수료생으로 뽑힌 것은 아니다. 그간의 출석상태와 시험점수, 평가보고서 등을 통해 어린이 포교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10명이 엄격하게 수료자를 심사했다. 그 결과 50명중 12명만 수료증을 받았다.

총 80강의로 진행된 ‘불교 어린이 교사대학’의 강의를 김태영 법사(문사수법)의 ‘부처님 일대기’는 수강생들로부터 유익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11월 강남 봉은사에서 열린 1차 수료교육에서 포교원 신도국장덕혜 스님이 사살건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교리·예절·놀이 등 프로그램 알차고 다양 발우공양·염불 실습...상설교육기관 바라

김법사는 이 강의를 통해 불교 기초 교리 지식은 물론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과 지도교사들의 신심고취 필요성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인상적이었다고 수료자들은 입을 모은다. 또 놀이전문가 이상호씨의 ‘어린이 법회 놀이와 예절지도’는 어린이 법회에서 실제로 응용할 수 있게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현실감 있는 강

의여서 교사들이 일선 포교 현장으로 돌아가 곧바로 적용할 내용들이 풍부해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함께 받았다.

6개월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한 정기자씨(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부회장)는 “18년동안 어린이 포교를 위해 일해왔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었다”며 “이번 교사대학 프로그램은 교육기간과 내용 등에

있어서 몇가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강사들의 수준이 높아 효과적이었다고 좋아했다. 어린이 포교에 관심이 많아 강원도 문막에서 6개월동안 열성적으로 강의에 참가했다는 한쪽에서는 “이번 교육중 강남 봉은사에서 열린 수료회에서 발우공양, 염불실습 등 불교 습의 교육을 해와 피상적으로나마 알던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몇가지 있다. 우선 강의 프로그램의 난이도를 적절히 선별 배합하지 못해 몇몇 강의는 참가자들의 수준에 따라 지루하고 식상했다는 지적도 흘러 나왔다. 또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에서 탈피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강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도 보완해야할 점으로 강조됐다.

양진수 조계종 포교원 주임은 “불교 어린이 교사 대학이 정식 상설교육기관으로 설립된다면 많은 어린이 지도교사들이 교사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찰과 어린이 단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6월중으로 평가위원과 실무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갖고 불교 어린이 교사 대학의 정규 상설교육기관 인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주부 실행담

보시행의 공덕 ㉞

그후로도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병원 목욕봉사를 하러 대구지역의 병원을 돌아 다녔다. 나는 항상 병원에 가면 환자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 시키는 일을 주로 하지만 환자의 병상 앞에 앉아 기도 드리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세상의 모든 아픈 이들이 빨리 자신의 병을 훌훌 털고 병석에서 일어나길 빌었다.

살아가다보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의 바다’라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젊은이들 병원에서 봉사하다 만난 적이 있다. 28세의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하체를 전혀 움직이지 못해 내가 목욕 봉사를 해주었다. 올 봄까지만 해도 부인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절망에 빠진 환자들에게 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겨 놓고 기도하며 마음을 편히 가지면 모든 고통과 병은 물러간다고 자주 강조한다.

봉사봉사를 시작한지 2년이 지나자 나는 환자들을 통해 오히려 삶의 용기를 하나씩 배운다. 그들의 투병생활을 지켜보며 인생에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며, 돈이나 재물에 집착하기 보다는 정신적인 풍요를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에 따라 행복의 가치기준이 정해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 봉사를 가려고 집을 나갈때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배우러



그림·이준석

환자 돌보다 삶의 용기 배워

항상 병석을 지키고 있었지만 결혼한 지 1년도 안돼 하반신 불수가 된 남편을 두고 갑자기 떠나가 버리는 바람에 혼자 되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신에게 연거푸 닥친 불행에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청년은 자신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장애와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나는 시간날때마다 그 청년을 방문해 기도하며 용기를 잃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다.

간다는 마음에 발걸음이 가볍다. 요즘은 고려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병실들을 차례로 돌면서 단주, 불서, 테이블 등을 나눠 주며 기도를 함께 해준다. 그럴때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주방 아주머니들까지도 모여 들어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환자들은 우리 봉사단 일행을 무척 반겨준다.

모든병의 원인은 대개 마음으로부터 온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주어진 장애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판가름난다. 이 환자의 경우처럼 자신의 장애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현실을 받아들여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면 세상의 모든 시련을

아픈 아들을 낚았으므로 간호하고 있는 병실의 한 아주머니는 집안이 모두 개신교 신자인데 내 얘기를 듣고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러더니 내가 준 단주를 열심히 끌리며 기도하고 있다. 또 불서와 법문 테이프를 들고 공공하거나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질문한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말로 하는 포교보다는 행동이 수반된 포교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계속)

도재원(대구광역시 북구 고성3가)

“지도법사가 알아야 할 자료 등북”

어린이법회 지침서 낸
대불어회장 정여 스님



성, 운영, 부처님 말씀,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여름, 겨울 불교학교 등에 이르기까지 어린이 법회 지도자나 스님들이 알아야 할 자료들이

“어린이 법회 지침서는 지난 십 수 년간 어린이 포교를 위하여 정진함으로써 얻은 성과물입니다. 어린이 법회의 종합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6일 코도호텔에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5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어린이 법회지침서> 출간기념법회를 함께 가진 정여 스님의 말이다.

<어린이 법회 지침서>는 총 356페이지 분량으로 어린이 법회의 개념부터 구

임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어린이법회지침서>에는 어린이 법회 개념 정리부터 생일이나 야외법회 등 각종 법회별 프로그램의 모델이 소개돼 있으며 마지막장은 어린이법회 지도자의 자질과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청소년 자원봉사대 발족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7일 청소년 자원봉사단 지킴이 제3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발대식을 치른 봉사대원들은 7월 7일까지 주 1회에 걸쳐 독거노인가정방문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된다.

또 월 1회 복지관에 모여 평가를 열어 정보 및 의견 교환의 기회를 마련한다. ‘청소년 지킴이 봉사대’는 지난해 3월25일 처음으로 만들어져 그동안 1년여에 걸쳐 꾸준한 활동을 해왔다.

청소년 단산

봉화산 청소년 축제 다채

봉화산 청소년축제 준비위원회는 5월 1일 밤 11시 봉화산 청소년 수련원 특설무대에서 ‘봉족 특집 청소년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댄스대회를 비롯해 저어걸 공연, 즉석 장기자랑, 예절 자랑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또 모창가수 나훈아와 대학 그룹사운드들이 펼치는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055/342-2991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①

이번호부터 선무가 이선옥 씨의 ‘선무 건강법’을 연재합니다. 매주 선무기법을 통해 심신건강법을 소개할 이선옥 씨는故 김백초 선생에게 현대무용 및 한국무용을 사사했으며 선무용단을 창단해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지에서 300여회의 공연을 펼쳐왔습니다. 현재 상명대학교 무용과 겸임교수이자 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네트워크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선무와 선무기법•

참선의 목적은 인간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해탈 즉, 자신의 본래 면목을 찾는 데에 있다. 선무(禪舞)는 이러한 선의 궁극적 지향점을 위한 조심 조식의 원리를 무용으로 변용시킨 기법이다. 이를 나는 선무기법(禪舞技法)이라 부른다.



은 단순한 동작과 직관으로 이루어진다. 단전 호흡과 의단, 수인법으로 정신을 집중하는 움직임이 연결된다. 정신과 합일을 이루어가는 한 동작 한 동작 그 자체가 무용치료가 되는 것이다. 선무기법에는 단전호흡을 포함한 기본적인 테크닉과 감정 컨트롤, 즉흥법, 음양이 원리와 마음자세 등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을 함께 움직이는 운동을 통해 몸의 기를 풀고 건강한 생활로 나아가려는 것이 선무기법의 목적이다.

몸과 마음 움직여 지아찾는 명상법

선무란 단순한 아름다움이 표현을 넘어 자아정찰을 위한 과정을 동작 또는 춤을 통해 구현해 나간다. 한 마디로 움직임을 통한 명상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선무(禪舞)기법(禪舞)은 이 선무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선무기법

북 중국 서안 국보사찰 선유사 신라대덕 혜초스님 기념비 제막식

— 황실사원 법문사 현존 유일의 불지골(佛指骨) 사리 친견 —
— 중국 4대 불산 지장성지 구화산 음력 윤 4월 천도재 —



수당시대부터 불교의 중심지로 이름을 떨쳤고, 당송대의 수많은 문인학사들이 거쳐갔던 중국의 국보사찰 선유사. 당나라 대종제 구법차 오셨다가 황제의 명을 받아 선유사에서 기우제를 지내신 “왕요천국국전”으로 널리 알려진 신라의 고승 혜초스님. 당건설로 인한 선유사의 수몰때문에 인근 언덕위에 새로 복원되는 선유사에 대응보전 법암탑과 나란히 혜초스님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휘호 현판으로 제막식이 봉행됩니다. 중국 대륙의 중심, 국보사찰에 세워지는 한국스님을 위한 최초의 기념비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십시오!

혜초스님 기념비 제막식 행사
불기 2545(2001)년 6월 13일 오전 10시

중국서안/구화산 5박6일-98만원
1차 - 6월 11일 14시 출발 (12시 집결)
2차 - 6월 12일 10시 출발 (08시 집결)

- ✪ 1차 출발편과 2차 출발편은 기념비 제막식 행사 관계로 2일째와 3일째의 일정이 서로 맞바뀌며, 항공 사정상 일정 운영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 인천신공항에서 출발합니다.
- ✪ 동참금에는 중국비자발급비용과 공항이용료, 출국세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300명 선착순 마감합니다.

증명 : 청화촌스님

세 부 일 정

- 제 1일 : 서안 도착후 간단한 시내 관광
- 제 2일 : 대흥선사, 대인탈, 병마용경, 홍교사 순례, 화창지(유형은천역)
- 제 3일 : 선유사 혜초스님 기념비 제막식 동행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법문사 불지골사리 친견
- 제 4일 : 구화산 도착후 육신보전 천도재, 고배경대 순례
- 제 5일 : 구화산 개신사찰인 화성사 순례 무호 광제사 순례 남경 현우호 공원 관광
- 제 6일 : 인천신공항 도착후 해산



법문사 법암탑의 지공



법문사 사리공릉대와 보주정당, 불지골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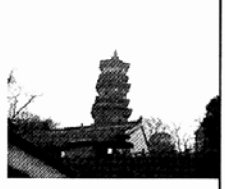
황실사원 법문사 전경



진시황 병마용경



혜초스님께서 기우제를 모신 옥녀당의 거북바위



지장보살 김교각스님이 구화산에 들어가시기 전 수행했던 무호 광제사



진시황릉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주)반야여행사 후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중국서안불교협회, 조계종전국비구니회, 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방송, 불교TV 협찬 ✪ 이랜드인 사람들아시아나항공 ✪ 교인의 영혼을 편안하게 모시는 벽계정안공원 ✪ 정통중국요리의 명가 하림각 문의전화 : (02) 730-0020